

# 순천 송광사 조계문, 선암사 일주문 이어 보물 지정

시, 전국유일 일주문 보물 두개  
조선후기 형태...역사가치 높아

송광사 조계문이 보물로 지정됐다. 순천시는 선암사 일주문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물 지정 일주문 두 개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5일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에 대한 보물 지정서를 소유자(관리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

송광사 조계문은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이다. 일주문은 경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던 송광사는 강당 앞 개울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전형적인 일주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

며 조선 후기 사찰 일주문의 일반적인 구조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은 “송광사 조계문이 사찰과 공간 구분을 하는 일주문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보물로 지정했다.

일주문은 그동안 사찰 건축물 중 주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을 일괄 조사해 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 외 3건(문경 봉암사·대구 동화사·구례 천은사)을 보물로 지정했고 이번에 송광사 조계문 외 5건(곡성 태안사·합천 해인사·함양 용추사·하동 쌍계사·달성 용연사)의 일주문을 보물로 추가 지정해 2개 사찰이 보물에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시 송광사 조계문.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선암사 일주문에 이어 송광사 조계문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국내 유일하게 두 개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보

유한 역사문화도시가 됐다. 한편 순천 선암사는 지난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여수·고흥·완도군 등 경계 해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김양식시설 설치 시기에 맞춰 여수·고흥·완도군 등 경계 해역의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불법 설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에서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 행위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부터 어업지도선 2척과 어장정화선 1척, 어선 3척 등의 장비와 인원을 10회에 걸쳐 경계 해역에 투입하고 100m 길이의 불법 김양식 시설 25척과 약 1300개의 불법 시설물인 부표를 강제 철거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김양식시설 설치 시기에 맞춰 여수·고흥·완도군 등 경계 해역의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장학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고흥출신 대학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고흥교육발전기금으로 받은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500만 원을 고향 사랑기부금으로 전액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1등부터 5등까지 500만원, 6등부터 20등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고흥교육발전기금의 대표적인 장학 지원 사업이다.

대학생 김 군은 “고흥에서 학교에 다니며 받았던 장학금 등 혜택을 고향 고흥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부모님과 상의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하면 좋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도 고향과 학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김군의 마음이 정말 대견하고 기쁘다”며, “김군의 고향 사랑이 보람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 순천시, 청사 앞 불법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순천만국가정원지회서 설치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 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고 신청사건립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차

례 협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철거된 천막은 청사 내 통행로로 사용 중인 공용부지를 1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

불법점유 부지는 이번 달부터 착공이 예정된 신청사 건립 계획에 포함되며, 향후 차량·민원인의 주요 이동통로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 및 통행 불편 호소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고 묵과하기에는

어려웠다”며 “공공의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로 시민의 안전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인근 상인은 “그동안 각종 집회 등의 소음공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고, 흉물로 방치된 천막으로 인해 정원도시 순천의 이미지 실추가 되는 것 같아 매우 언짢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집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구례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 2749톤 매입

구례군은 2023년산 공공비축미 계획 물량을 전량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입 품종은 △새일미 △새정무 두 개 품종으로, 군은 산물 벼 299톤, 친환경 벼 180톤, 건조 벼 2270톤을 매입했다.

군은 흰잎마름병 피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농가에서 희망한 피

해 벼 15톤도 전량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정해질 예정이다. 우선 지급금은 40kg 기준 3만 원으로 수매한 직후 지급됐고, 추가 지급금(차액금)은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말에 정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생육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미질 악화가 우려됐으나, 농민들의 노력으로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이 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구례 쌀 생산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시상식  
장흥군, 61점 접수... 19점 선정

장흥군은 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은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및 가정 내 아빠의 역할을 독려하고자 지난 9월25일부터 17일간 접수를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한 가정당 두 점 이내의 사진을 응모받아 총 32가족 61점의 사진이 접수됐다.

군은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 심사 결과 우수작품 19점을 선정했다.

우수작품 19점은 12월 한 달 간 장흥군청 1층 로비 및 행복민원관에서 전시된다. 향후 저출산 및 양성평등 관련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협약  
순천시, 전라권 최초

우유 배달 중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이 전라권 최초로 순천시에서 진행된다.

순천시가 (사)어르신의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사장 호용한) 및 주원교회(담임목사 홍춘규)와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왕조 1동 및 덕연동의 홀로 사는 노인 50명에게 우유배달을 시작하고, 이와 함께 안부를 살펴 만약의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유는 매일유업 배달망으로 주 3회 배달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2개 배달되며 우유가 주머니에 2번 이상 쌓이면 시에서 어르신의 건강이나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경찰,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참여치안 등 중점 6개과제 제시



구례경찰서(총경 유도연)는 5일 구례 군의회에서 군의회장, 군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성치안·참여치안 등 ‘군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구례경찰’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점 6개과제·세부추진과제 21개 항목을 제시하며 치안파트너로서 주민 참여치안을 높이기 위해 치안정보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구례의회 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의 충실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례군의회에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도연 구례경찰서장은 “지역 이장단 회의 등 주민을 찾아 치안정보를 제공하고, 소소한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성치안을 펼치겠다”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지역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